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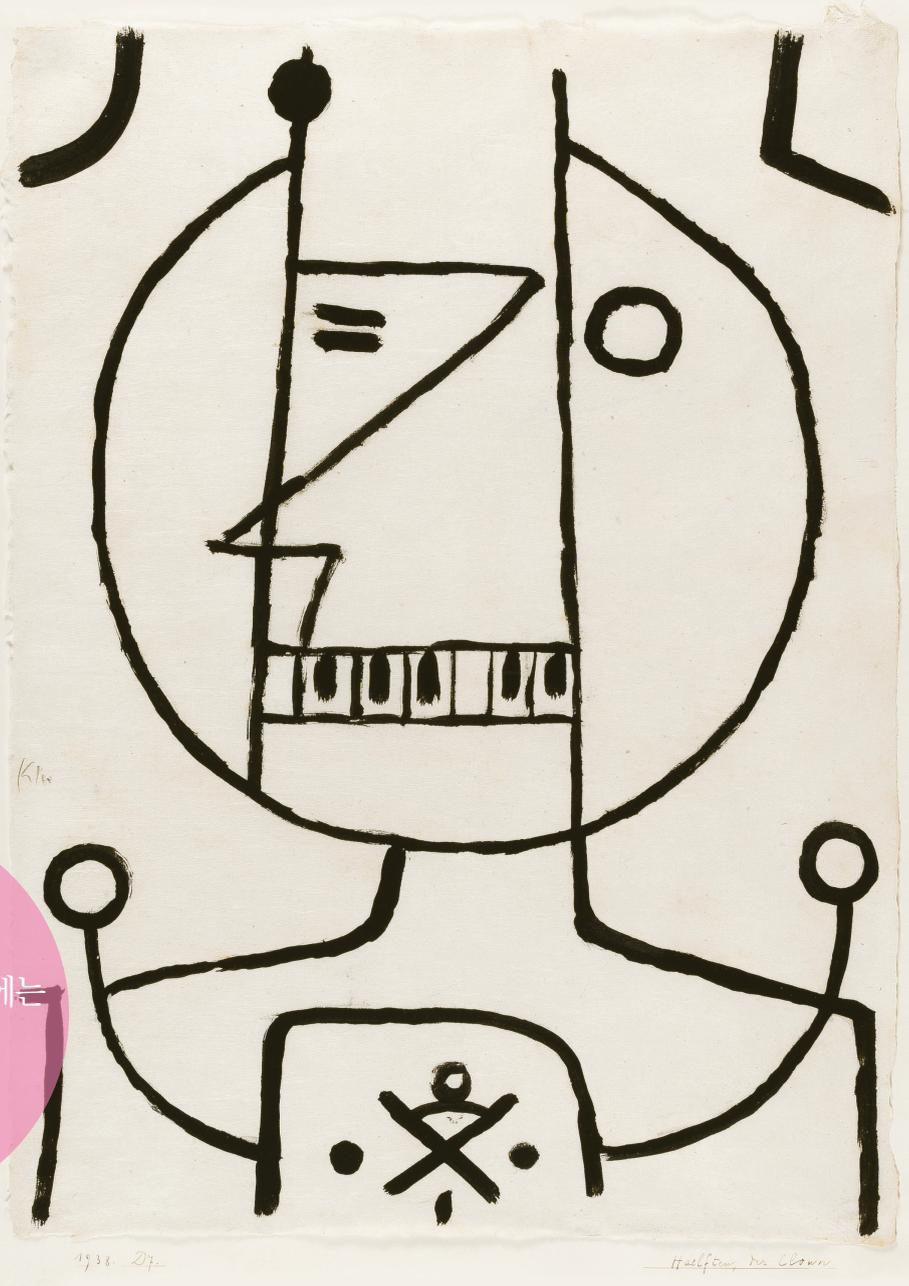
04

드로잉에 빠져들다

- 1 다양한 드로잉의 재료와 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
- 2 일상의 재료를 이용하거나 일상에 적용된 드로잉 작품을 탐색할 수 있다.
- 3 창의적인 드로잉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
어린이가 그린
캐릭터 같은 이 드로잉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

▶ 클레(Klee, Paul/스위스/1879~1940)
광대 하멜벤(종이에 먹/57×42cm/1938년)



드로잉에 빠져들게 만드는 다양한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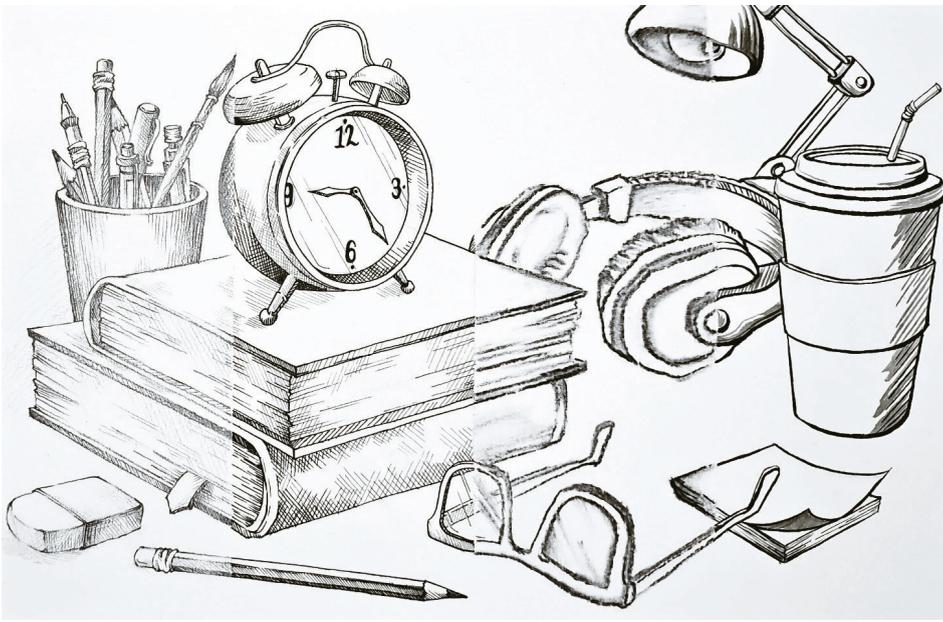
드로잉은 우리와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미술 분야이다. 드로잉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는 누구든 다양한 일상의 재료로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그리느냐, 단순하게 그리느냐와 같은 드로잉 방법에 따라 그 결과와 느낌은 매우 달라진다. 마음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가볍게 그리며 쉽고 재밌게 드로잉이 건네는 친근하면서도 색다른 이야기를 살펴보자.

① 석창우(한국/1955~) 한국의 몸짓(화선지에 먹/70×35cm/2011년) 상고를 돌리며 장구를 치는 풍물패의 동작을 빠르고 간결한 선을 사용하여 표현한 크로키* 작품이다. ② 강하람(학생 작품) 나(종이에 펜/23×18cm) 종이를 보지 않고 대상만을 관찰하며 연속적인 선으로 인물의 얼굴을 그린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작품이다. ③ 한수지(학생 작품) 여행(종이에 연필/18×18cm) 여행 갈 때 사용하는 가방, 카메라, 운동화 등의 외곽 형태만 단순하게 선으로 그렸다.



여러 재료로 그려 보기

연필, 목탄, 콩테, 펜, 마커, 물감 등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표현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 **조윤아**(학생 작품) **나의 일상**(종이에 연필, 펜, 목탄, 물감/17×26cm)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배치하고 네 부분으로 나눈 화면에 서로 다른 재료로 그려 완성한 작품이다.

▼ **아멧**(Ahmet, Lizy/영국/미상) **격리**(종이에 색연필/21×21cm/2020년) 색연필의 다양한 색감과 부슬부슬한 질감이 한데 어우러져 탄생한 스크리블드 라인 드로잉 작품이다. 굴리듯이 선이 겹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의 느낌을 살리기

곡선, 직선, 짧은 선, 빠른 선 등 사용하는 선의 조형적 특징에 따라 작품이 표현하는 감정과 느낌이 달라진다.



▲ **안교범**(한국/1973~) **얼굴 이미지**(종이에 연필, 금박/41.9×29.7cm/2022년) 좌우로 거칠게 움직이는 듯한 연필 선을 사용하여 웃는 표정에 어울리는 역동적인 느낌의 드로잉을 완성하였다.



▲ **반 고흐**(van Gogh, Vincent/네덜란드/1853~1890) **농부 여인이 있는 오래된 포도 농장**(종이에 혼합 재료/44.3×54cm/1890년) 구불구불한 선을 이용하여 부드럽으면서도 어지럽게 뒤섞인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다양한 목적을 살려 드로잉하기

형태 연습, 아이디어 발상, 제작 전 연구, 대상 묘사, 작가의 감정 전달 등 목적에 따라 드로잉은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형태와 구조 관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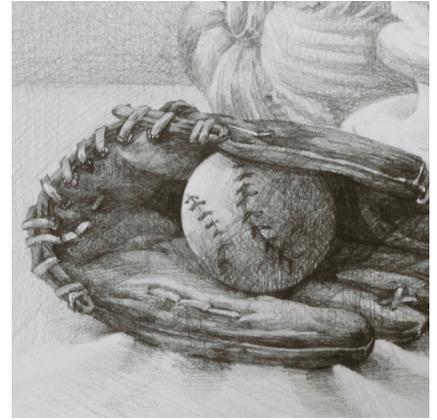
▲ 뒤러(Dürer, Albrecht/독일/1471~1528) **자화상, 손과 베개 연구**(종이에 펜/27.8×20.2cm/1493년) 인물과 손, 베개의 형태, 빛에 따른 명암, 질감 등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 드로잉을 활용하였다.

움직임 포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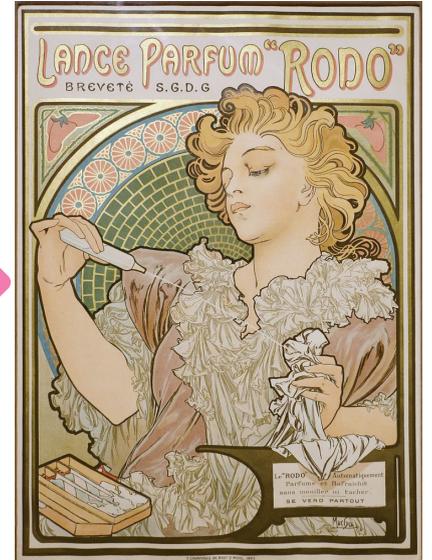
▲ 해린(Haelyn Y/한국→미국/1973~) **댄서 #47**(종이에 목탄/91.4×92.5cm/2018년) 목탄으로 선을 중첩하여 그림으로써 춤추는 발레리나가 움직이는 흐름을 포착하였다.

덩어리와 명암 표현하기



▲ 곽윤아(학생 작품) **글러브**(종이에 연필/28×28cm) 연필의 선을 겹쳐서 쌓고 진한 정도를 조절하여 글러브에 형태와 덩어리를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구상하고 계획하기



▲ 무하(Mucha, Alphonse/체코/1860~1939) (좌) **랑스 향수 '로도' 포스터를 위한 스케치**(종이에 혼합 재료/44.1×32cm/1896년) (우) **향수 '로도' 포스터**(석판화/44.5×32cm/1896년)

여러 사람의 호흡이
나비가 되었네.

드로잉 그 자체를 즐기



▲ 최선(한국/1973~) (좌) **나비**(캔버스에 잉크/160×914cm/2014년) (위) **작품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 캔버스에 잉크를 떨어뜨린 다음 그것을 붙여서 번지게 만들어 완성한 드로잉 작품이다. 지역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이다.

드로잉의 영역 넓히기

드로잉은 평면과 재료의 한계를 벗어나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드로잉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 헨슨(Hansen, Heather/미국/1979~) 텅 빈 제스처(퍼포먼스, 종이에 목탄/355.6×355.6cm/2013년) 손, 발 등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움직임의 궤적을 남기는 드로잉을 그렸다.

▶ 장하은(학생 작품) 반반 다른 달리(OHP 필름에 네임 펜, 라인 테이프/18×12cm)



▲ 시먼스(Simmons, Erika/미국/1983~) 밥 말리(카세트테이프/25×18cm/2020년)

▶ 올리베이라(Oliveira, David/포르투갈/1980~) 비아(철사/100×100×250cm/2011년) 얇은 철사를 활용하여 공간에 거친 느낌으로 인물의 형태를 만들어 드로잉인 듯, 조각 같은 작품을 만들었다.



표현 활동

관광 명소 홍보 드로잉 카드 만들기

표현 재료

색지, 도화지, 색연필, 사인펜, 양면테이프, 비즈 혹은 반짝이 가루 등

- 1 관광객에게 소개하고 싶은 관광 명소를 선택하고 드로잉으로 표현할 이미지를 탐색한다.
- 2 색연필, 사인펜 등 자신이 선택한 재료를 활용하여 관광 명소의 풍경을 드로잉으로 묘사한다.
- 3 OHP 필름, 색지로 드로잉 작품을 감쌀 박스를 만든다.
- 4 드로잉 작품을 박스 안에 넣고 풍경과 어울리는 비즈나 반짝이 가루 등을 작품 위에 올린 다음, 그 위에 투명 필름지로 덮고 박스를 닫는다.
- 5 박스를 흔들었을 때 풍경과 비즈, 반짝이 가루가 한데 어우러지는 셰이커 박스를 완성한다.



▲ 박시연(학생 작품) 웰컴 투 원주 '뮤지엄 산' (혼합 재료/13×17cm)

단원 점검하기

- 드로잉에 적합한 일상의 재료를 탐색하여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창의적으로 드로잉을 제작할 수 있는가?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그리기 시작하면 된다.

- 피카소 -